

劇團「釜山」레퍼터리시스템 창단10주년기념 제61회 공연

우리음내

원작:손튼와일더 번역:장 세 종
제작:허 영 길 연출:이 기 원

일시 : 1988·6·1 ▶ 7 평일 PM 7:30
토. 일. 공휴일 PM 4:30, 7:30

장소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동국대 대학원장
서국영

〈우리 읍내〉의 무대기법

〈우리 읍내〉는 「그로버즈 코오너즈」라는 조그만 평범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이라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삶의 '주기성'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주의적 기법을 활용한 사실주의 극작품이다.

제1막은 현실적인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인생의 한 주기를 보여주는 시간을 1911년5월 7일로 정하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무대의 소도구를 들고 나와서 설치하고, 무대감독을 등장시켜 그의 설명을 통하여 관중에게 무대가 가지는 시공의 초월을 예고해 준다.

본래 표현주의극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시도 없이 장소와 시간이 바뀌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변화를 미리 예고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 읍내〉의 극작가 「와일더」는 사실주의적 기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무대감독의 설명 제시로 인하여 관객들에게 연극을 보고 있음을 자각시키고 있어 분명히 연극과 관객을 괴리시키고 있는 '이화효과'의 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막의 1923년 여름, 에밀리는 죠오지와 결혼하여 산고로 죽게 된다.

그러나 에밀리가 1907년 열두번째의 생일날에 영혼이 자기 집으로 갈 때 그녀는 지상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 와일더는 하루동안에 인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무대위에 올려 놓아 삶에 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는 순간에는 1911년 5월 7일로 되돌아 온다. 이렇게 표현주의적 기법을 활용한 획기적구성을 통하여 1907년의 에밀리가 걸어나와 지나간 일상생활의 소중한 장면을 보여주고 관객인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세계로 되돌려 보내준다.

작가는 〈우리 읍내〉의 장면이 사실적인 마을인 「그로버즈 코오너즈」의 가로변에 무대를 국한시켜 환상의 세계로 흐르지 않는 사실성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일상세계인 우리들의 마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죠오지와 에밀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행복을 찾는 우리들의 분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골격무대의 사용과, 극중 시간과 공간의 초월이 묘사된 표현주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사실성있게 처리한 우수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 포기하긴 쉽다. 그러나... -

亡者는 침묵할 뿐, 미워하지도 않아 平和롭건만
산 者만이 걱정도 팔자요, 말의 洪水요, 탈도 많은 것이다.

「만남」의 所重함이 세 치의 혀 위에서만 회자될 뿐
정작 떠났거나 永遠히 볼 수 없을 때 그 무게가 가슴을 친다.

「연극은 만남의 예술이다 - J.그로토스키 -」
時間이, 空間이. 事物이, 宇宙가 그렇다. 다만 人間이 곧잘 모른다.

孤獨한 者는 안다.
이 都市는 웅대하여 삭막하기만 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북새통으로 이 거리는 황량하기만 한 것을
고향찾는 셀레임으로 젖어드는 연극이전만
그 속에서도 더 짙은 외로움이 때론 분노, 슬픔같은 주름은 걷히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区分조차 모호한 하루, 하루 그리고, 또 하루여!
10주년엔 피빛의 격렬함과 싸늘한 공포가 교차되는
그리하여 목덜미가 지끈거리고 가끔 잔털도 서는 그런 무대 이고 싶었다.

「내일, 또 내일……」 - 맥베스 - 「폭풍우여 몰아쳐라! ……」 - 리어왕 -

헌데 이 무슨 망발이라?
「우리읍내」의 밋밋하기 풀죽같은 人間들의 日常과 一生이라니?

불꽃같은 야망도, 한판 승부에 생애를 거는 투철함도 없이
아, 平凡하여 너무도 平凡하여 망망대해같은 「우리읍내」여!
너가 나를 잠재워 꿈 속에서만 살게 할 것인가?
너가 나를 참선의 경지로 몰아 결국 질식사 시킬 것인가?
선택된 너, 선택한 나는 운명적 원수지간이다.



이 기 원

살아 투쟁할 줄만 아는 人間에게 있어 대상은 항상 복수의 표적이다.
하여 예수님은 위대하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다시 말한다. - F.니체 -

「원수를 사랑하는 方法은 원수를 스승으로 섬길것」

그들은 갔고 광장으로 내몰린 우리는 궁상을 떨 뿐이다.
죽도록 마시지 말것, 미치지도 말 것이지만 그만 두지 않을 것.

자연스러움이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 것.
타성에 젖지 않되 順理를 거스르면 피곤할 것임을 느껴 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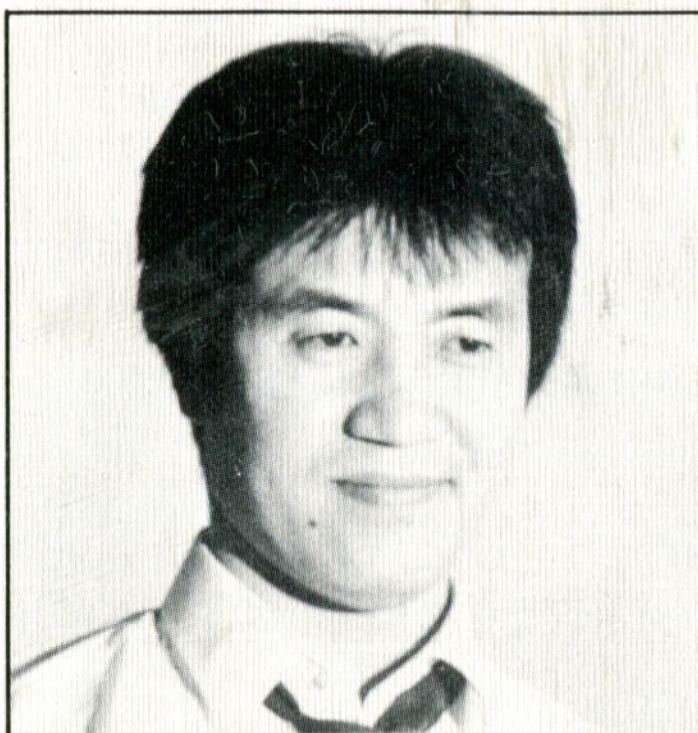
연극, 그 허상에 매달린 10년을 어지러워 하지 말되
오늘부터 찾아야 할 인생, 그 실상을 두려워 할 필요없음.

平凡한 것이 平凡하여 원수보다 사모치는 소중함임을 느낄 때 까지
自身만이 유별나고 특수상황에 처해 있다는 착각을 버릴 것.

그리하여 세월이 물 흐르듯 제 목숨도 그렇게 버려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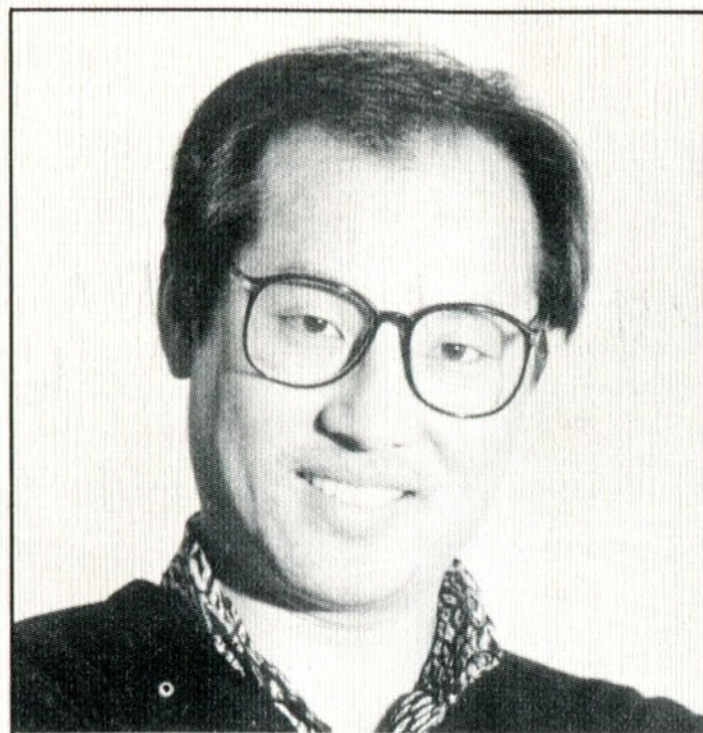
극단의 10년이 있게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되
이 作品을 故 姜龍吉兄의 영전에 바침 또한 잊지 말 것.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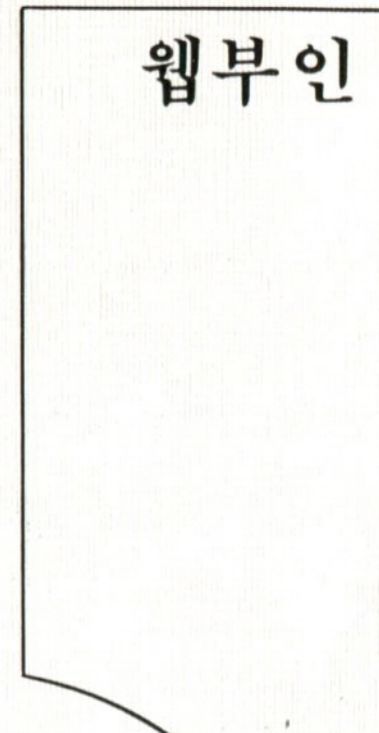
무대감독

이상복



웹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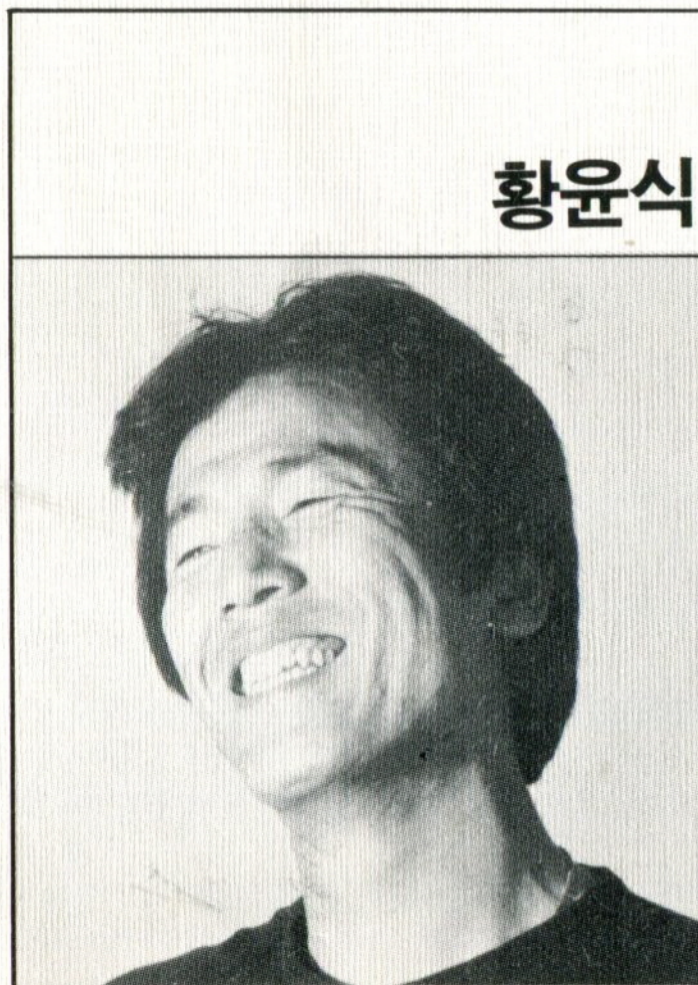
김상훈



웹부인

이동희

웹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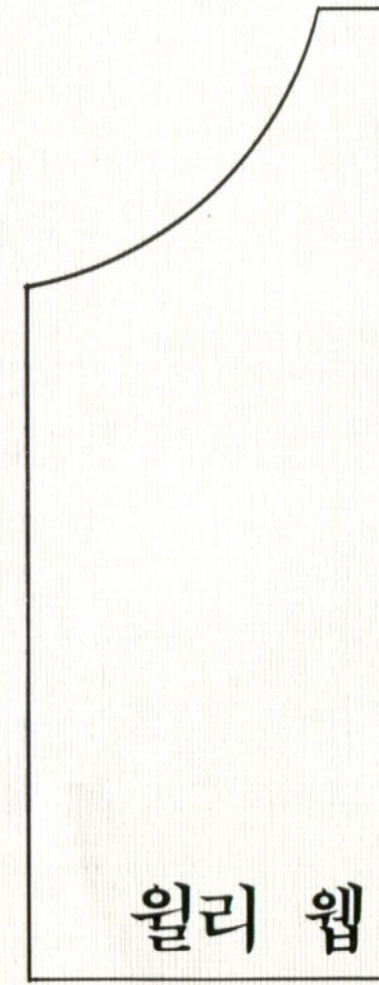
황윤식

하우이
뉴우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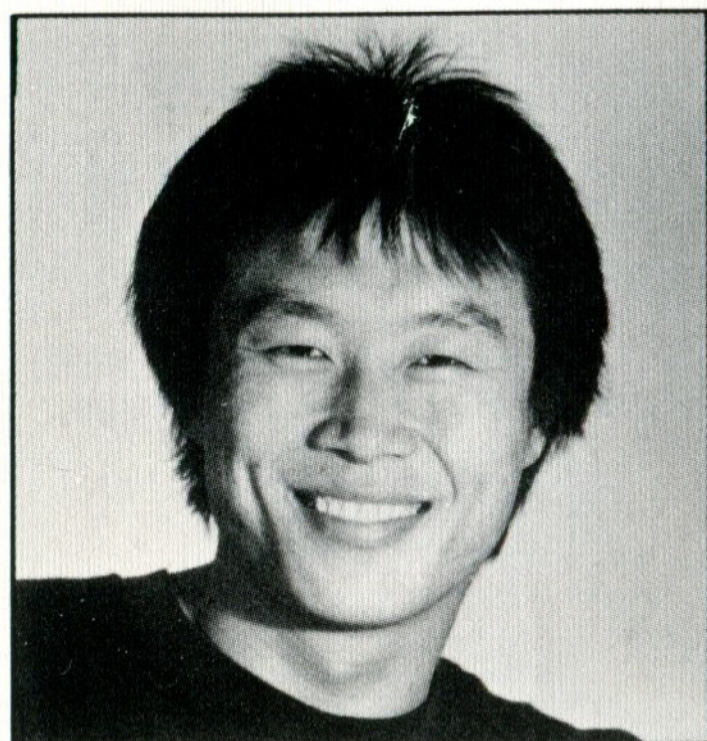
김상연

에밀리웹



정승필

윌리 웹



김스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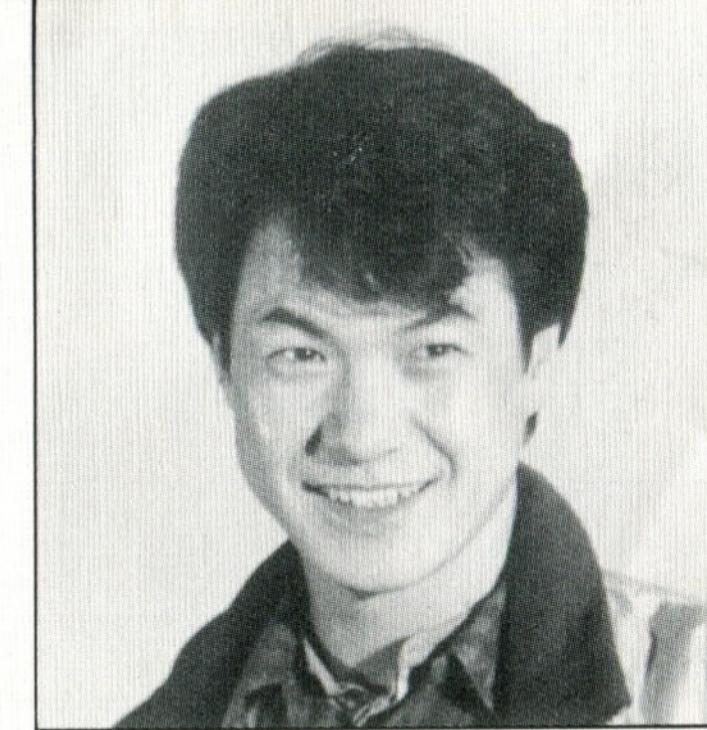
유상홀

김스부인



박미형

싸이먼
스팀슨



박상규

김스가족

최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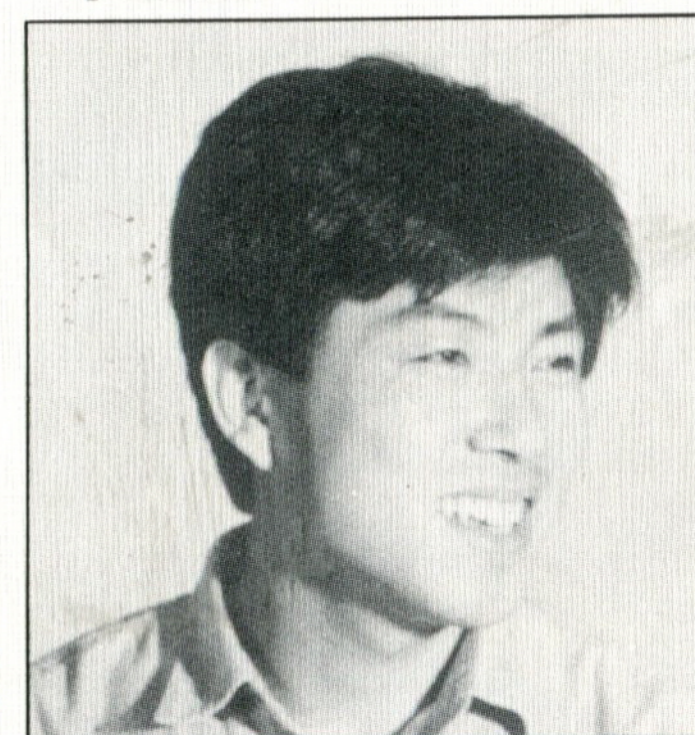
리베카김스

박상하



쥘오지김스

박영만



워린순경

CAST



샘크레이크

권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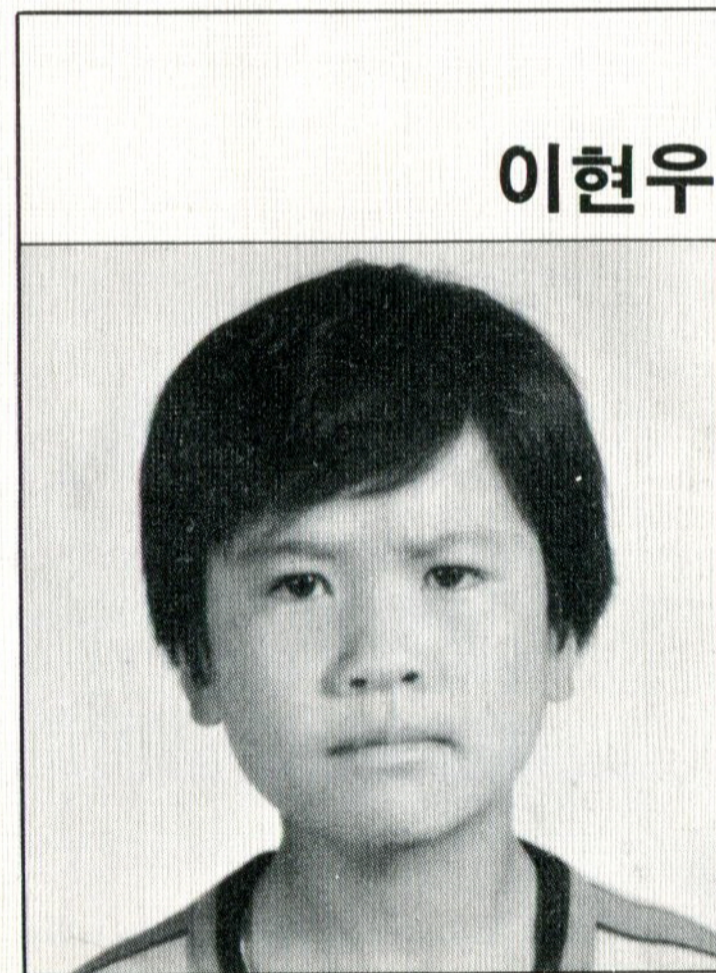
쏘옴즈부인

김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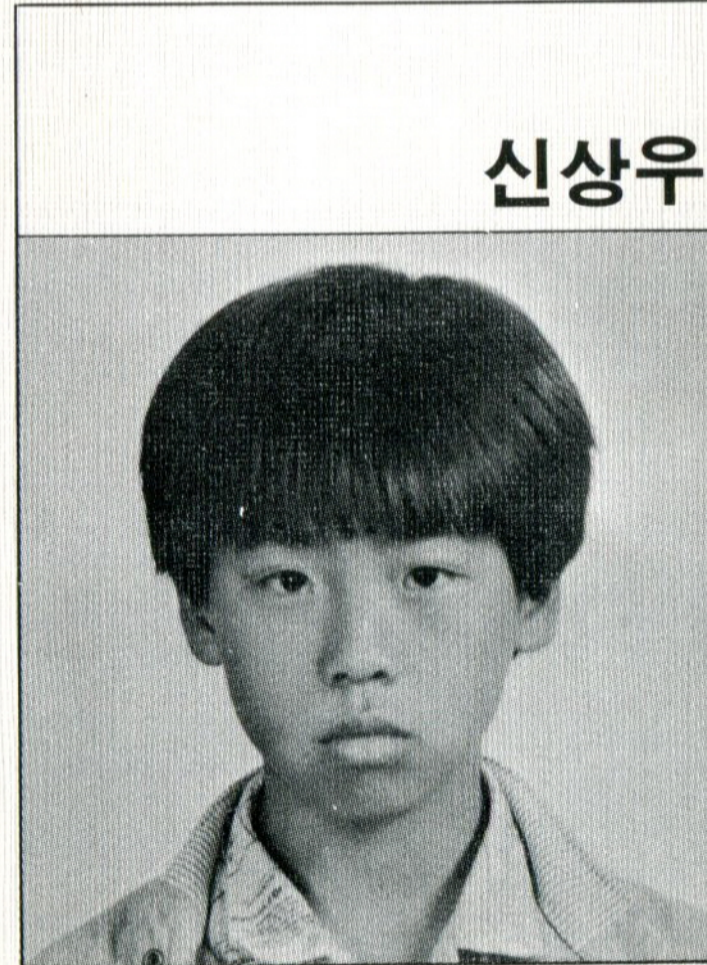
특등석
귀부인

김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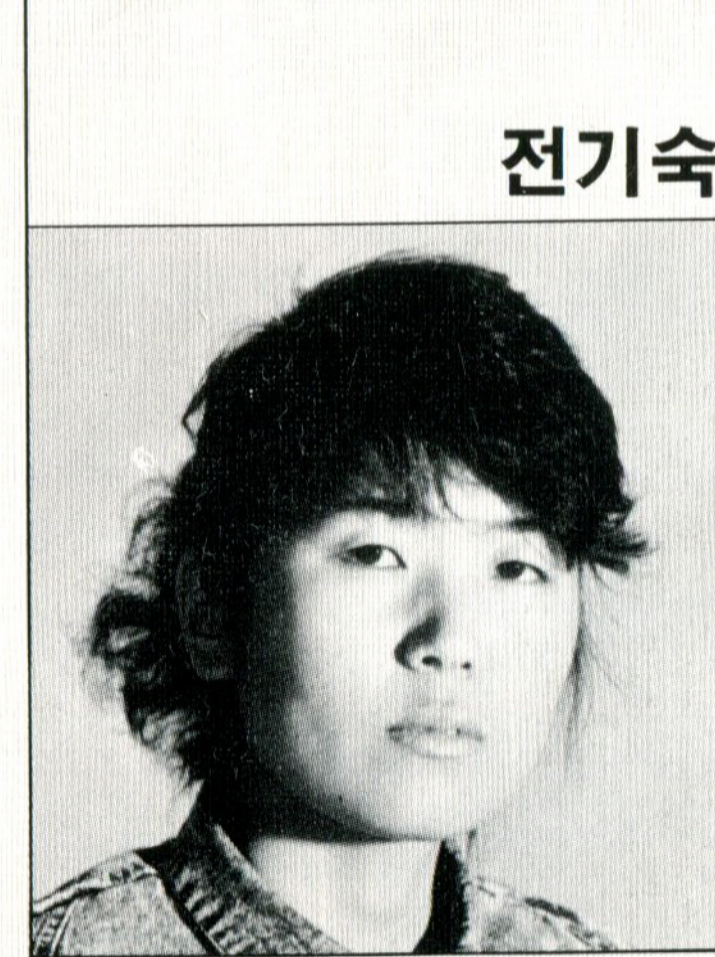
이현우

쥬오
크로오웰



신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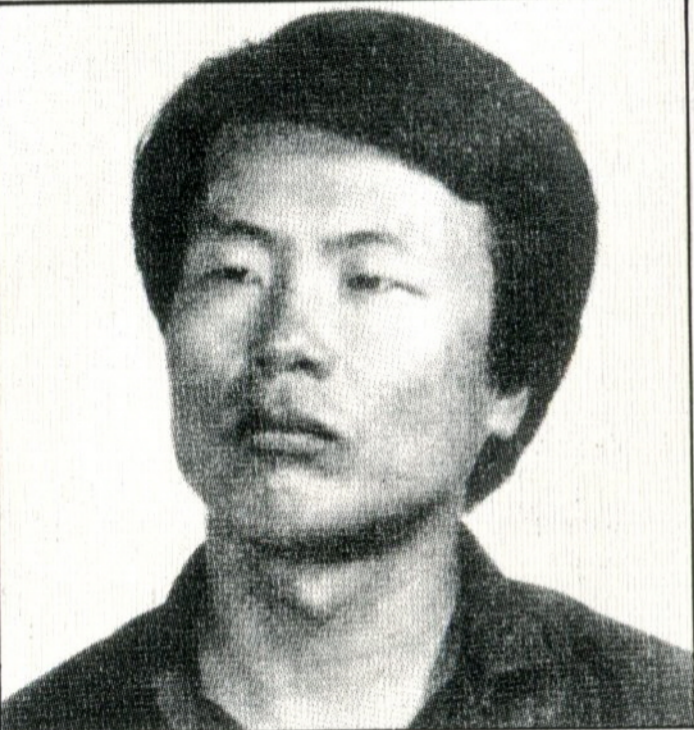
싸이
크로오웰



전기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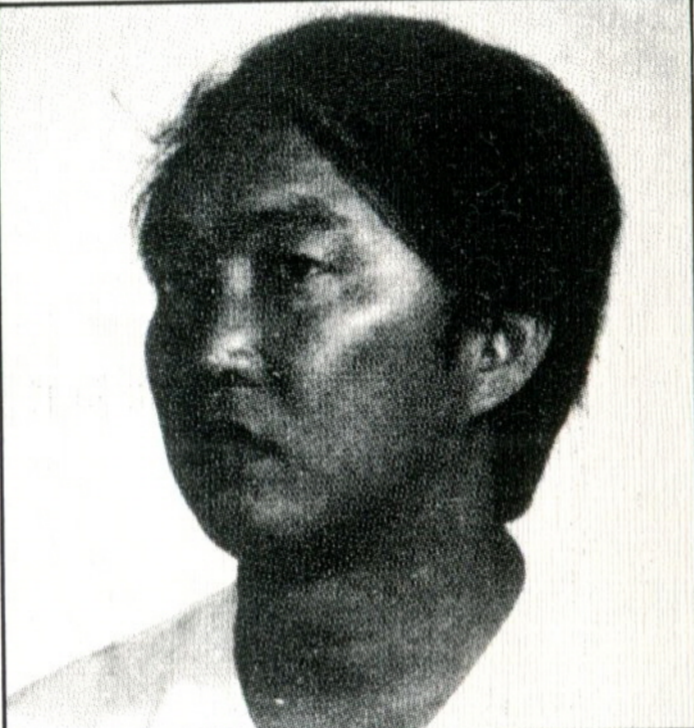
특별석부인

STAFF



기획

김동석



조명

김영환



진행

김선자

민순라



의상

박혜인



음향

박금순



소품